-코로나 19 상황에서 편안하고 존엄하게 가정 임종을 맞이한 아동의 가족 사례-

2022. 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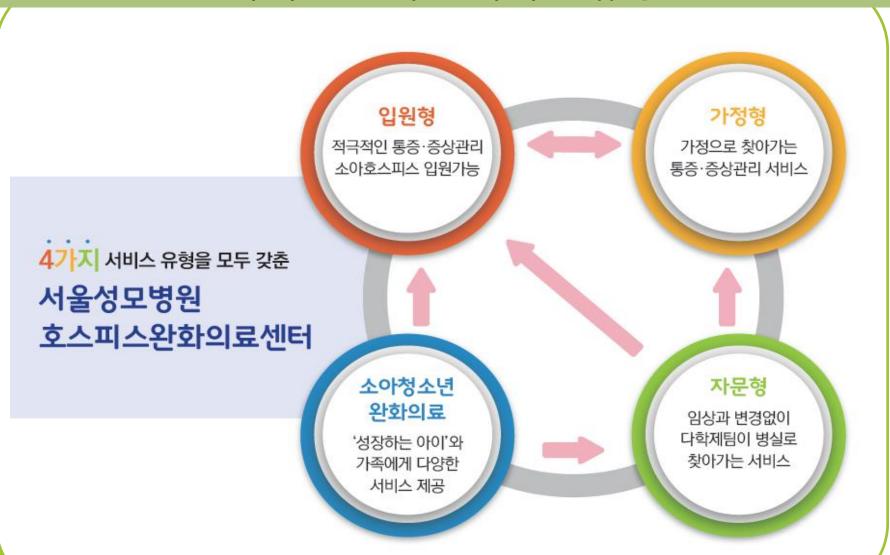
호스피스완화의료팀 최 선희







4가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



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정의

정의

소아청소년완화의료란

소아청소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치료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증상, 불편, 스트레스 등 신체적·심리적·사회적·영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입니다.

(출처: 보건복지부, 중앙호스피스)

[세계보건기구(WHO)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정의]

- 소아의 신체, 정신, 영혼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돌봄
- 질병이 진단되었을 때부터 제공하며, 질병의 근원적 치료를 받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됨
- 의료인은 소아의 신체적, 심리적, 사회적 고통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한 돌봄을 제공
- 환자의 가족을 포함하고,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폭넓은 다학제 팀접근을 필요로 함
- 3차 의료기관,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제공됨

(출처 : WHO)





솔솔바람

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. 우리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아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봄바람이 되어주고 반복되는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힘든 일상 가운데 희망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.



솔솔바람은 다학제팀으로 구성됩니다.

심각한 상태에 있는 소아청소년 **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** 위해 팀 접근 활동을 통하여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.

환자&가족



완화의료의사, 정신건강의학과 의사

- · 치료계획 수립
- · 신체적 통증 및 증상 조절
- ·마음심리상담



전담사회복지사

- · 환아 및 가족 심리적 지지
- · 사회 · 경제적 자원 연계



자원봉사자

- · 환아돌봄서비스(대학생 놀이시터 제공)
- · 사별가족 지지



전담간호사

- · 돌봄 간호 제공
- · 신체 간호 및 전문적인 증상 관리



윈목자

- · 영적 상담 요구 사정
- · 종교적인 서비스제공 (기도, 세례, 교리, 성서 등)



요법 치료사

· 미술, 색체, 놀이, 음악요법 통해 정서적 지지 제공

솔솔바람 팀원을 소개합니다.



솔솔바람 팀활동을 소개합니다

팀 활동

팀 회의 및 돌봄 회의

매주 목요일 오후1시에 팀원들이 모여 개별사례회의를 통해 환아와 가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치료계획을 수립합니다.

완화의학과 외래진료

매주 수요일 오후4시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외래진료가 있습니다.

팀 회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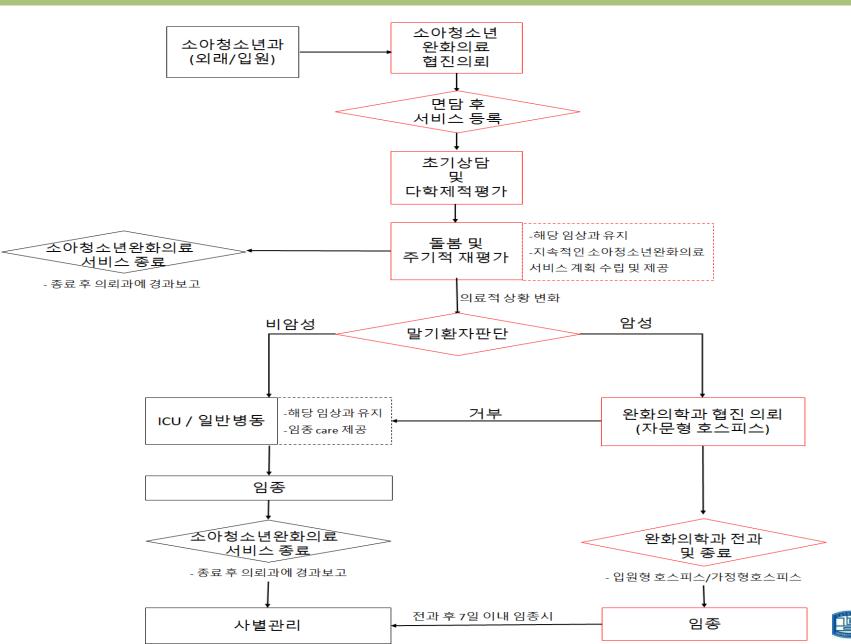
매주 목요일 오후2시 완화의사, 전담간호사, 의료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원들이 입원중인 환아 대상으로 정규회진을 합니다.

완화의학과 마음상담 외래진료

<mark>매주 목요일 오</mark>전 10시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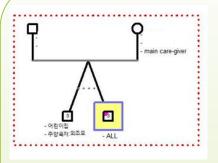


솔솔바람 서비스 방법



서울성모병원

소아청소년완화의료 사례(1)



이 름: 최솔솔 (남자/3세)

진단명: 급성 림프모구성백혈병(Acute Lymphoblastic Leukemia)

조혈모세포 이식 받은 후 질병이 재발함

의뢰사유: 정서적 지지,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CARE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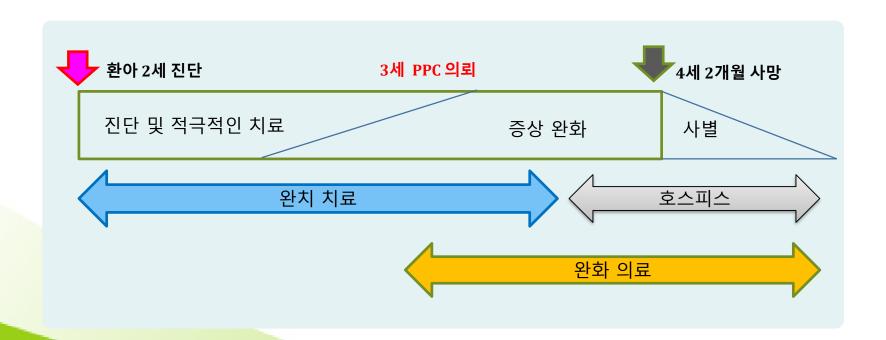
| | 상태 | 치료-서비스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2세 |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받음 | | |
| 2세 6개월 | 항암화학요법 중 6개월 경과시 1차 재발함 | 적극적 치료 | |
| 2세 9개월 | 1차 타인간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 받음 | | |
| 3세 | 1차 이식후 3개월에 2차 재발하여 PPC 의뢰됨 | 적극적 | 소아청소년 |
| 3세 6개월 | 재관해 항암치료후 2차 타인간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 받음 | 치료 | 완화의료 |
| 3세 8개월 | 2차 이식후 2개월 만에 재발하여 호스피스 결정함 | 자문/입원형 호스피스 | |
| 4세 2개월 | 입원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중 가정에서 임종함 | 입원/가정형 호스피스 | |

PPC: Pediatric palliative Care 소아청소년완화의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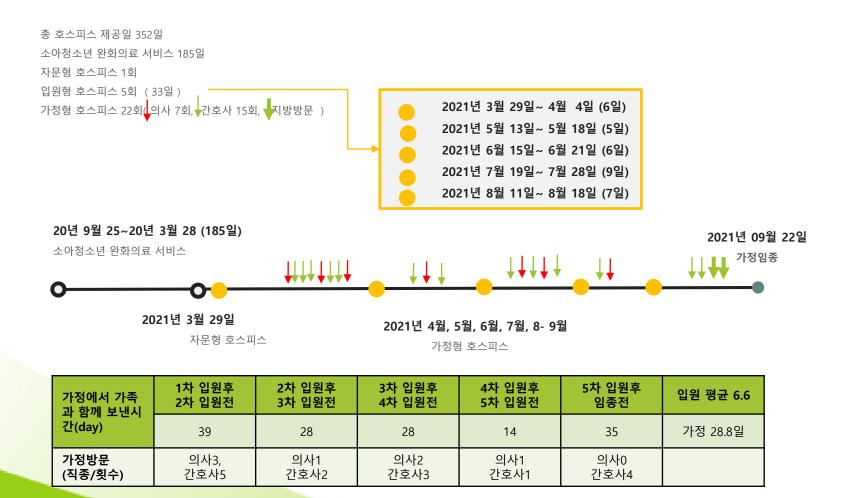
소아청소년완화의료 사례(2) – PPC 제공시점

• 세계보건기구(WHO)는 질병의 경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 시점부터 치료와 완화의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솔솔바람 의뢰 시점은 질병이 재발된 후임





소아청소년완화의료 사례(3)





소아청소년완화의료 사례(4)

◆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서비스 : 185일

백혈병으로 1차 조혈모세포 이식후 재발한 상태로 의뢰되어, 재관해 항암치료 기관과 2차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동안 PPC 제공함

서비스 개요

- 심리·사회적·경제적·영적 지지
- 마음상담, 미술치료, 음악치료
- 대학생자원봉사자 놀이프로그램
- 임종 및 사별관리 서비스
- 소아암 환아의 경우, 호스피스 단계 시 입원형 호스피스로 연계

활동내용

- 돌봄회의 통해 맞춤 서비스 계획
- 정서적지지(감정적 환기제공)
- 입원시 주 1회 돌봄회진
- 외래 방문시 증상체크
- 생일 등 돌봄행사 진행
- 놀이 키트 제공
- 환아모에게 쉼의 시간제공
- 음악치료 1:1 연계
- 치료비지원(한국**재단)
- 의사결정 도움- 자문형 호스피스 연계
- 업무폰을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
- 임종 시 사용하는 키트 제공



PPC 서비스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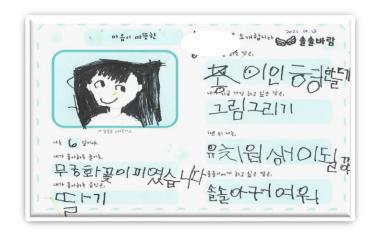
-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아프고 불편감을 없애 줄까?
-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할까?
- 작은 관심으로 아이의 일상을 크게 채워주는 일
- 가족이 커피 한잔을 온전히 음미하며 마실 수 있는 여유
- 환아와 가족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
- 환아와 가족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것



PPC 서비스(2)

• 첫 만남시 – 웰컴키트를 제공하여 환아가 스스로를 나를 솔솔이에게 소개합니다.





• 바라미데이 – 대학생자원봉사자[바라미]가 준비해준 놀이키트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(비대면 서비스).









PPC 서비스(3)

• 영적지지를 제공합니다. 성경책과 성물 제공, 기도, 유아세례식







• 돌봄행사 -장기재원, 입퇴원 반복하는 환아들에게 소소하고 즐거운 일상(발표회, 전시회 등)을 만들어 줍니다.







PPC 서비스(4)

개별 맞춤 음악치료 –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옵니다.







• 개별 맞춤 미술치료 – 미술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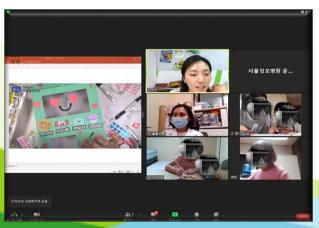
PPC 서비스(5)

비대면 집단 미술 / 음악 프로그램





• 정서지원 프로그램들 – 융합창의미술 & 그림책 Z00M 수업









PPC 서비스 - 중요한 의사결정

Q :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 할 것인가?



"아이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."

"두번째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때 다시 재발하면 더 이상 치료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.. 아이들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두려워요."



#의료적인 상황: 암이 재발하고 항암치료에 불응성인 상태

#심리사회적인 상황 : 환아는 빨리 퇴원해서 집에 가고싶어 함. 집에는 쌍둥이형과 아빠, 할머니가 있음.

A : 아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, 가족과 함께 집에 있고 싶어..

자문형 호스피스 의뢰



소아청소년완화의료 사례(5)

◆ 자문형 호스피스: 1일

2차 조혈모세포 이식후 2개월 만에 재발하여 호스피스를 결정하셔서 자문형 호스피스 팀에 의뢰하여 상담함

서비스 개요

- 통증 및 증상관리 자문
- 심리·사회적·경제적·영적 지지
- 호스피스 입원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
-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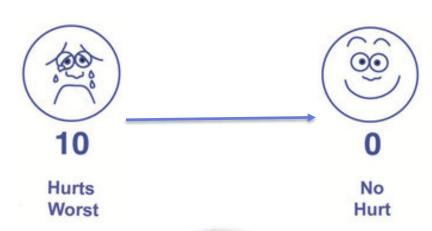
활동내용

- 연명의료 결정
- 입원형 호스피스 연계





자문형 호스피스 – 적극적인 통증조절







소아청소년완화의료 사례(6)

◆ 입원형 호스피스: 5회 (33일)

입원기간은 평균 6.6일로 꼭 입원하여 시행해야만 하는 증상관리시에만 입원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함

서비스 개요

- 적극적인 통증 및 증상 관리
- 심리·사회적·경제적·영적 지지
- 음악·미술·원예 등 요법 프로그램
- 가정형 호스피스로 연계
-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
- 사별관리 서비스

활동내용

- 적극적인 통증 및 증상관리
- 침상 목욕 및 안위 제공
- 환아가 먹고 싶어하는 것 제공
- 환아의 부/모 식사 제공
-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
- 사별관리 서비스
- 영적 지지



소아청소년완화의료 사례(7)

◆ 가정형 호스피스: 22회

입원후 다음 입원 사이의 평균 기간은 28.8일로 병원 근처 쉼터에 있는 환아를 방문하여 가정호스피스 서비스 제공하였고, 임종기에는 지방에 있는 환자 집으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통증 및 증상관리 시행하고 업무폰으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게 도움

서비스 개요

- 전문 간호인력 및 의료진이 가정방문
- 통증 및 신체적 증상 관리
- 입원형 호스피스로 재입원 가능
- 환자와 보호자 돌봄 상담 및 교육
-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



활동내용

- 가정으로 의료진이 찾아가는 적극적인 통증 및 증상관리
- (통증의 사정, 표현, 관리의 중요성, PCA 관리, 히크만 관리)
- 적절한 자세유지, 마사지, 통증을 완화하는 중재법 교육
-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교육
-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경청
-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
- 업무폰을 활용한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
- 사별관리 서비스
- 영적지지(대세)



소아청소년완화의료 사례(8)

◆ 임종간호

임종과정

- 통증과 증상 조절이 잘되어, 자택에서 가족
 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 보냄
- 잠자듯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였고 환자의 임종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장례절차를 시행함

가정임종의 의의

환아가 익숙한 환경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일상 생활에 가까운 시간을 보낼수 있었음 (병원에서의 임 종은 면회 제한 및 코로나-19 방역 절차에 따라야함)
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,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 받으며, 환자의 마지막 모습이 편하고 고통없이

웃는 모습이여서 사후에 가족 모두에게 위안이 됨

아쉬운 점

- 환아는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2시간 반이 걸리는 지역에 거주하여, 집 근처에 호스피스병원으로 전원을 원하였으나, 소아 호스피스 care가 가능한 병원을 연계하지 못함(소아용 케포포트 바늘, 소량수혈등)
- 병원 근처에 환아들을 위한 숙소를 예약하여,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, 마지막 입원후 임종전 열 흘 사이에는 환아를 데리고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기 불가능 하였음
- 예외적으로 [서울]에서 가정호스피스 간호사가 환아의 거주지[지방]를 방문함
- 거주지 근처 의사선생님의 왕진을 부탁해 사망선고 및 사망진단서를 발행할수 있었음 (사망진단서를 발행 받지 못할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함)



PPC 서비스 - 임종돌봄



아이가 사망하면 불신, 분노, 죄책감,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통제할 수 없는 눈물, 자녀의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[솔솔바람]에서 준비한 부드럽고 포근한 블랭킷을 덮고 집에서 잠자듯 평화로운 모습은 사별 후 가족들에게 편안하게 잘 보내주었다는 위안을 주어,

삶의 마지막 순간이 아프지 않았다는 기억으로 남습니다.



PPC 서비스 - 사별가족지지



사별 1주기에 아동을 기억하며 솔솔바람팀과 함께한 추억과 위로의 글을 자택으로 발송합니다.

"우리 아이를 잊지않고 기억해주는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."



소아청소년완화의료 사례(9) 사별지지

| 사별 후 | 지지내용 | | | |
|-------|------|---|--|--|
| | 지지대상 | 내용 | | |
| 4일후 | 부모 | 환아의 부모가 PCA 등 반납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여, 소아청소년완화의료 팀 전담간호사, 전담 의료사회복지사, 원목자, 병동 팀장, 매니져, 입원담당 간호 사, 가정호스피스 전문간호사와 만나, 치유의 시간을 가짐 | | |
| 2달후 | 모 | 환아가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으나 대화할 상대가 마지막을 함께한 의료진 뿐이라며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 업무폰으로 전화 주셔서 환아의 옛 일상을 공유함 | | |
| 3달후 | 모 | 환아의 납골당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 주심 사별 후 오는 슬픔에 대해 공감 및 지지함 | | |
| 100일후 | 모 | 환아의 엄마를 대면으로 방문 환아의 동생에게 새해 선물전달, 사별지지하고 슬픔이 정상반응임을 공감하고 정서적 지지함 | | |



발전방향

- 소아응급 체계를 구축하여 성공한 예와 마찬가지로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서비스는 국가 주도하에 거점 병원을 마련하여 환자가 어디서나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 되어야한다.
- 아이가 임종에 이르는 과정이 존엄 해야 남은 가족이 아이와의 헤어짐을 기억하며 삶을 살수 있다.
- 거주지 근처에서 입원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교육, 병실 및 소아용 장비 등의 구비가 필요하며, 가정호스피스가 제공가능하도록 치료 지역과 거주지병원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, 간병 지원 및 가족들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다.

"아이는 우리의 미래다. 환아들의 힘든 하루하루가 '평범한 일상'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."



숙련된 손길로 인간다운 품위을 지키며, 남아있는 삶에 대한 준비를 통해 죽음을 희망으로 승화 시키는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











사랑합니다.



